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17

가나안에 대한 저주, 국가표,

가나안에 대한 바벨의 저주 (창 9:25-26)

우리는 창세기 9장의 후반부인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25-27절에서 노아가 한 저주/축복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25절에 보면,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 고 말합니다. 나는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가 완전한 종이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것은 강조된 종류의 공식화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의 형제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0장으로 가서 6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0장은 실제로 사람들을 노아의 세 아들까지 추적하는 국가의 가계도입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에게 종의 종이 되리라” 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이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다. 그래서 미스라임은 이집트 지역이고 구스는 흔히 에티오피아와 동일시되지만, 반면에 메소포타미아에 구스가 있기 때문에 구스는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에티오피아에 정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Put은 아마도 동아프리카나 남부 아라비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함의 후손과 이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 10장 15-20절을 살펴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느니라. 그 후에 가나안 족속이 흩어지고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이르렀느니라. 가나안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차지하게 된 가나안 땅으로 알려지게 된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정복 이야기를 읽으면 민족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게르가스 족속, 신 족속 등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 *-im*’ 으로 끝나는 결말은 분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 10장으로 가면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을 낳았더라” 라는 *-im* 결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민족 뒤에 단수형 이름을 지녔다가 복수형이 된 개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상에게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같이 함은 시조이지만 구스, 미스라임, 붓은 대표적인 족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족속입니다. 나는 이것이 성취된 것을 고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매우 보잘것없고 예측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적절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강대국이였다. 가나안은 두 세력이 지배권을 위해 다투는 일종의 십자가였으며, 가나안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코 주요 세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인 가나안이 될 것이며, 구스는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대표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셋 계열 26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셈이 야훼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것은 셈과 그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특정 그룹의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셈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썸의 계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씨가 궁극적으로 나올 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11장에서는 썸의 계보를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추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리라. 곧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정복의 성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썸의 계통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야곱의 후손을 거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복종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열왕기에 들어가면 열왕기상 9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 곧 솔로몬이 그들에게 종의 역세를 부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정복할 때에 많은 사람이 멸망하였을 뿐 아니라 남은 자도 노역을 하였느니라. 거기에는 정말로 예언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야벳 계열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소망이나 분노의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언적이예요. 이 진술에서 성령은 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니 그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 확실히 첫 번째

진술은 다소 분명합니다. 야벳은 확대될 것입니다. 그 진술이 사람의 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라.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갓딤과 로다님입니다.” 이제 Madai 또는 Medes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자바는 일반적으로 현재 그리스가 위치한 반도의 그리스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중 일부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제 “썸의 장막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것이 식량이나 보호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야벳은 썸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썸은 어떤 식으로든 야벳에게 자양분과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내 생각엔 로스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로스는 “하나님이 야벳을 넓히실 것이다”라는 문구에서 “넓히다”가 영토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썸의 천막에 거한다는 것은 야피족이 그 영토를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복, 나는 그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78:55에서 “그가 이방인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기업을 줄로 나누시며 이스라엘 지파들로 그 장막에

거주하게 하셨느니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벳에 관한 것이 아니고 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천막에 거한다는 것은 정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5장 10절에 “사울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싸워 손에 패하고 길르앗 동방 온 땅에 장막에 거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암시되는 것은 정복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예언은 야벳이 창대하여 셈을 정복하고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로스는 진정한 정치적 정복이 의도되었다고 말하며, 처음에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과 로마인인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동쪽으로 진군하여 다른 여러 나라 중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왕국이 붕괴된 후, 결국 로마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의 가나안 정복에서 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교적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셈족과 유대 민족과의 접촉을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 야벳에게 종교적 축복을 내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간단한 진술이지만 장기적인 의미를 가지며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가나안에 대한 저주로 돌아가기

함 대신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뜻입니까 ? 내 생각에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노아가 함에게 반영된 특성이 어떤 면에서 가나안에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레위기와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에 묘사된 것처럼 많은 부도덕한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그런 효과에 대해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종류의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NIV 연구 성경 노트에는 “어떤 사람들은 함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 함보다 더 악할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후자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F. 창세기 10장의 국가표 F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국가표” , 나는 이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관한 좋은 기사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성경 사전* . 많은 사람들을 식별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이름 중 많은 부분에 대해 많은 모호함과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기사를 참조하세요. 내 생각엔 그게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는 것 같아요. 11페이지의 3분의 1 정도 아래에 있는 TT Mitchell, *New Bible Dictionary* 의 “Nation, table of-” .

이 민족들의 도표가 있는 10장에는 고대 문학에서 독특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와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 홍수 이야기와는 달리, 인류의 통일성이 최초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0장과는 유사점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사람들은 모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은 실제로 9장의 18절과 19절을 확대한 것입니다. 노아 사건의 막간 직전인 18절과 19절을 참조하십시오.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이니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퍼지니라.” 10 장은 그 진술을 설명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어떻게 온 땅이 뒤덮였습니까 ?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가계도가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의 가계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국가는 특정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국가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지만 일부 국가는 매우 모호합니다. 6절에는 미스라임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입니다. 22절에는 잘 알려진 나라들의 예인 엘람과 앗수르가 있습니다. “- im ” *어미* 로 이미 언급한 복수형이 많이 있습니다 . 개인의 족보에서는 그런 종류의 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이 장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16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유형의 형태도 있는데,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입니다. “-계열” 결말,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렉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그것은 영국인이나 프랑스인 또는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보다는 민족이나 국가를 더 잘 나타냅니다.

니므롯 이제 한 가지 예외는 8절 이하에서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고 읽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스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곳은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땅에서 위력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였음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큰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일컬음을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의 큰 사냥꾼과 같다 하였느니라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에서였더라 그 땅에서 앗수르가 나와서 니네베를 건설하였느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개인으로 보입니다. 이 국가 목록에 그가 소개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므롯이다. Nimrod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를 알려진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원전 2220년경 아카드의 나람 신(Naram Sin)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Finegan은 Naram Sin에 대해 논의하지만 46페이지와 그 다음에서는 Nimrod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니므롯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참고문헌에는 WH Bithspen이 쓴 “니므롯은 누구였는가?”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많은 확실성과 결론 없이 몇 가지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초기 청중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내가 이미 언급한 이 장의 목적은 사람들을 노아의 세 아들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처음으로 쓰여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던 민족들이 그 세 아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글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너무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홍수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니므롯은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니느웨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할 때 그들의 국경에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방언의 혼란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13절 “이들은 썸의 자손이니 그 종족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라” 이제 바벨탑 이야기는 11장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아의 세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즉 바벨탑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언어를 사용하여 발전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11장에서 나중에 설명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이 아브라함 시대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그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들 민족의 대부분은 아브라함 시대(기원전 2000년 경)에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가? 모세는 창세기의 초기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작업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노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사람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창세기의
 일부, 음, 창세기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미 기록된 이전 시대의 기록을
 가지고 작업했다고 가정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의 초기 장들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 시대 이전입니다. 밝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 저술에 있어서는 열왕기를 보면 그가 기록된
 자료를 가지고 작업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서는 저자가 출처를
 가지고 작업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대기에는 선지자 사무엘의 글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글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신의 시간에 대해 몇 가지 기록을 남겼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서를
 편찬한 사람은 그 기록을 사용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적
 기간을 조사하는 책의 작가들이 해당 시대 이전의 정보 출처를 활용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보다 천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처에 대해, 특히
 복음주의자들에게 말할 때, 출처 비평에 대한 일종의 양보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단지 내 생각에는 이
 역사가들이 그들의 자료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역사가가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감독하여 그들이 활용하고 기록한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소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참조,

눅 1:1-4). 문제는 이 책이 X개의 출처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모순된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이제 J 문서 생성 계정은 P 문서 생성과 다릅니다. 그 둘은 조화될 수 없다. 그것들은 모순적이며 역사적으로 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식탁에 관한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G. 바벨탑과 방언이 혼잡함(창 11:1-9) G. “바벨탑과 방언이 혼잡함, 창 11:1-9”로 이동합니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발전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만들어 잘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모르타르 대신 타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자, 성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지지 않게 합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언어를 말하는 민족이 이 일을 시작하면 그들의 경영하는 것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합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성 건설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천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느니라 .”

하나님은 왜 바벨탑에 개입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10장에서 사람들의 다양성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10장에서는 언어의 차이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여러 언어 그룹으로 나누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장이 실제로 일어난 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되도록 의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화나 전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 우리가 민족학적인 전설로 논의한 것처럼 그것을 분류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사용하여 언어가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간단한 역사로 제시됩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사람의 태도의 대부분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지 여부는 해당 일이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건설하고 있던 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개입하셨는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무엇이 그토록 불안했습니까?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바벨탑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 건설된 계단식 피라미드 같은 구조의 건물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 신의 보좌이자 신의 제단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론이다 . 그것은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종의 산이었습니다. 이제 Finegan에서 읽은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는 50페이지에서 기원전 2000년 우르의 제3왕조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일은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빌론에 있던 지구라트와 오늘날의 함무라비, 우르의 하늘과 땅의 단의 집. 그것은 더욱 유명해졌고 성서 전통에서 바벨탑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원전 1700년경에 함무라비가 건설한 지구라트가 여기서 성서 전통에서 바벨탑으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르의 지구라트가 이러한 유형의 모든 기념물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함무라비가 기원전 1700년경에 건설한 지구라트에 부착된 매우 전설적인 종류의 것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원전 1700년 이전에 건축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개발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그러므로 나는 현재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하는 지구라트와 바벨탑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의 목적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지구라트에서 행해지고 있던 일종의 이교 숭배였다는 근거로 주님의 진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망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4절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가서 성과 탑을 쌓자.” 히브리어는 *미그돌(migdol)* 이다. 히브리어를 수강하신 분들을 위해 칠판에 올려 놓겠습니다. 해당 용어의 사용을 살펴보면 요새, 방어 타워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하 26:9, “또 웃시야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굽이에 망대들을 건축하여 견고하게 하였더라. 또 그가 광야에 망대를 쌓고 우물을 많이 팠으니 이는 그에게 가축이 많았더라.” 이들의 목적은 군사적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가나안 족속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1장 28절을 읽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느니라.” 거기에는 “망대”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지만 “성벽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라” 고 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신명기 9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리니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느니라.” “하늘까지 견고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에는 요새화라는 개념이 있는 탑이 있다는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창세기 11장 4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바벨론과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이곳을 정치 권력의 중심지로 만들고 나머지 인류에 대한

폭군적인 통제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제안일 뿐이고 일종의 절대적인 통제와 지배권일 뿐입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 뿐 아니라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저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생각은 이미 4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그가 성을 건설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더라.” 그것은 가인의 계열에 속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 되니라.” 따라서 창세기 6장 4절의 “유명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도시 국가 왕들의 일부다처제 관계의 자손이 있습니다. 이미 지구상의 폭력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일, 즉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힘을 찬양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탑의 목적은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폭군적인 통치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신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건설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언어의 혼란 이제 우리는 언어 문제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하려고 생각했던 일을 아무것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합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지라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자주 묻는 질문은 언어 연구 결과가 창세기 11장 1-9절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어는 길고 느린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말하자면 모든 언어는 유동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언어를 수년 동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의 경우 지난 수백 년 동안 변화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창세기 11:1-9은 그러한 종류의 언어 발달을 배제하지 않지만 해석의 중요한 점을 제기합니다. 즉 7절이 분산의 원인을 제공합니까?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흠으셨습니다.”

분산을 일으키는 것은 언어의 혼잡입니까, 아니면 8절이 7절의 방언의 혼잡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까? 즉, 사람들이 흠어졌다가 고립되어 서로 다른 곳에 정착하면서 점차 서로 다른 언어가 진화했기 때문인가? 7절이 8절의 분산을 초래합니까, 아니면 8절이 7절의 방언을 혼잡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합니까?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자 우리가 가장 받아들인 견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은 불특정 수단에 의해 방언을 혼잡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라.”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의 방언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분산이 발생했습니다.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면서 점차 분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은 방언의 혼란이 될 것입니다. 분산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언어 발달 과정은 여기에 관련되지 않으므로 신성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흠여짐 행위입니다. 또다시 불특정한 수단으로 그는 사람들을 흠여지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흠여지게 했고, 그 후 사람들이 분리됨에 따라 현재 관찰 가능한 과정에 따라 언어가 혼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개입은 흠여짐에 있을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고립되어 분리되면 시간이 지나면 두 개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생긴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제안한 두 번째 제안입니다. 아마도 둘 다 관련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아마도 둘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방언을 혼란케 하시고 언어의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이 시작되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너무 많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래의 통일성을 추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원래 스톡 언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방언을 혼잡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알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을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언어가 모두 그 이후에 발전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책에는 여러분의 참고문헌에 나와 있고, 기사 중간에 교수가 쓴 논평이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인류학”이라는 흥미로운 언어에 관한 말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모든 역사를 통틀어 오늘날 모든 언어가 끊임없는 꾸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보다 속도가 더 빠르지만 모든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질적이거나 상호 작용하는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는 모든 언어 또는 방언 그룹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수단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도보로 몇

시간 거리에 있지만 둘 다 동일한 원래 언어에서 파생되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역사를 통해 계속됩니다. 이제 저는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아일랜드어, 스코틀랜드어, 게일어, 웨일스어, 리투아니아어, 폴란드어 등 현대 언어와 같은 긴 언어 목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어, 보헤미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알바어, 그리스어, 이란어, 힌두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들 중 다수가 파생된 현재 멸종된 고전 언어인 라틴어와 산스크리트어도 있습니다.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많은 언어들도 모두 언어학자들이 인도유럽어라고 부르는 동일한 언어의 정기적인 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멸종된 인도유럽어와 히타이트도 마찬가지로 더 오래된 언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언어 재고는 원래 그룹, 즉 다소 작은 언어 그룹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 과정은 아마도 현대 통신으로 인해 다소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영어는 글로벌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흥미로운 것 같아. Stigers는 11페이지 중간에 있는 창세기 주석에서 한 아시리아 학자가 중남미, 태평양 섬, 수메르 원주민의 언어와 언어 사이에 매우 명확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집트 사람. 따라서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남미와 태평양 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언어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세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조나단 클랜시(Johnathan Clancy) 필사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